



## 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 스페인, 더 멀리 저 너머로

### 17. 마드리드의 일요일 아침

마드리드의 일요일. 새벽 3시 반. 어젯밤에 피곤해서 저녁도 먹지 않고 그대로 잤더니 너무 일찍 깨어 버렸다. 밖은 캄캄하고 유리창에는 희미하게 성애가 끼었다. 오늘은 더 추운가 보다. 일기 예보를 보니 오늘 최고 기온은 화씨 49도, 해돋이는 8시 37분이라고 한다. 이메일을 정리하면서 오늘 일정을 생각해보았다.

오늘은 드디어 프라도 미술관을 관람하는 날이다. 개관 시간에 맞추어 입장해서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실컷 관람할 예정이다. 프라도 미술관에서 나와 시간이 되면 근처에 있는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까지 관람하고 싶은데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프라도 미술관은 오전 10시에 개관이니 그전에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하고 갈 것이다. R은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 배가 몹시 고프텐데...나도 배가 고프다.

7시 30분. 아직 깜깜했지만 R을 깨웠다. 피곤해서 어쩔 줄 모른다. 하지만 배가 너무 고프아서 이제 일어나야 한다. 빨리 아침을 먹고 마드리드의 일요일을 시작해야지. 우리가 샤워를 하고 준비를 하는 동안 서서히 날이 밝아 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단단히 췌겨 입고 쌀쌀한 겨울 마드리드의 일요일 거리로 나섰다.

호텔에서 우리가 아침을 먹기로 한 카페 페데랄(Café Federal)까지는 약 23분 거리.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가기로 했다. 호텔 근처의 콜론(Colon) 지하철역에서 21번호를 타고 네 정거장을 가서 산 베르나르도(San Bernardo)역에 내리면 된다. 일요일 마드리드 거리는 한산하고 조용했다. 날씨가 너무 추워 그런 것인지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콜론역은 호텔에서 약 5분 거리에 있어서 금방 찾았다. 지하철역 안도 조용하고 아무도 없어서 텅 빈 플랫폼에서 기다리다가 도착한 열차를 탔는데 열차 안에도 사람이 별로 없었다.

콜론역에서 출발해 네 정거장을 갔다. 약 6-7분 만에 산 베르나르도역에 내리니 한적한 주택가 동네가 나왔다. 여

기서 약 5분 걸어가면 카페 페데랄이 나온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길을 건너는데 맞은 편에 아파트 건물이 보였다. 평범한 아파트였지만 일층에서 옥상까지 발코니를 따라 푸른 식물이 층층이 타고 올라가며 자라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플라자 데 라스 코멘다도라스(Plaza de Las Comendadoras), 9, 28015 마드리드. 카페 페데랄에 도착했다. 아메리칸 스타일 아침 식사를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이곳을 선택했다. 스페인 사람들은 아침을 늦게 먹는 편이고 커피 한 잔에 빵 한 조각이나 비스킷 몇 조각 정도로 매우 가볍게 먹는다고 한다. 저녁 식사를 9시나 10시쯤 늦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맥도널드도 스페인에서는 현지 풍습에 따라 오후 1시까지 블랙퍼스트 메뉴를 제공한다고 들었다. 그러나 R과 나는 오늘 아메리칸 스타일로 푸짐하게 먹을 작정이었다.

카페 페데랄은 정말 아메리칸 스타일 레스토랑이었다. 팬케이크나 프렌치 토스트 같은 전형적인 아메리칸 메뉴는 물론 직접 짜주는 야채 주스도 있었고 미국에서 흔히 먹는 아보카도 토스트처럼 브런치 아이템들이 많았다. R과 나는 우선 녹즙처럼 보이는 그린 주스를 주문해서 마셨다. 신선한 야채 주스가 목으로 넘어가니 눈이 다 밝아지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보카도 토스트는 영롱한 녹색의 루꼴라 샐러드와 함께 나왔고 R이 주문한 계란 요리는 조그만 무쇠 팬에 갖가지 구운 야채와 함께 얹혀 담겨 나왔다. 커다란 토스트 빵은 잘 구워져서 바삭바삭 했다. "엄마, 역시 사람은 항상 야채를 먹어야 해, 그치?" R이 열심히 먹으면서 한마디 했다. "그래, 나도 야채 먹으니까 살 것 같아! 많이 먹어!" 우리는 아메리칸 스타일 아침 식사를 끝내고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한 잔씩 마셨다. 스페인까지 와서 미국 스타일 음식을 찾아 먹으니 좀 겸연쩍었지만 그래도 아주 기분이 좋았다.

## 메디케어 처방약보험

치과: 본인이 원하시는 치과의사 선택과 전반적인 치과 다 커버되는 우대플랜 (\$1500-\$2000/yr) - (지역별로 다름)

- ★ 올해 65세가 되시는 분 (메디케어 수혜자)
- ★ 시니어 우대플랜 - Part C (A+B+D)
- ★ Extra Help (처방약 보조)가 필요하신 분
- ★ Medicare와 Medicaid (메디칼)을 같이 갖고 계신 분
- ★ 현재 플랜을 바꾸고 싶으신 분
- ★ 타주 혹은 다른 카운티에서 이사 오신 분
- ★ Supplement Plan (PPO)
- ★ 의사나 병원 선택의 자유



\*29년의 오랜 경험으로 어르신들께 필요하신 혜택을 최선으로 찾아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에이전트와 상담하세요

**Sally Kim Licensed Insurance Agent**  
(714)714-6393 License No. 0B07129  
Skim8588@yahoo.com

## 부에나 팍 양로병원

Buena Park Nursing Center ★★★★★

### Skilled Nursing

IV 투여, 당뇨, 통증관리, 투석케어  
외상치료, 호스피스케어 등

### Subacute Unit

Respiratory, Tracheostomy Care  
Ventilator 등

#### 서비스

한국음식 또는 미국음식  
한국인 스태프 / 한국인 소셜워커  
한국책, 신문 / 24시간 한국방송  
다양한 한인교회 봉사활동

#### 재활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메디케어, 개인, 메디칼, HMO, PPO 취급합니다

www.buenaparknc.com

한국어: 562-240-3516 한국분이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영어 : 714-828-8222 Fax: 714-828-1467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 EquitySource

## 직판매 PROGRAM



저희가 부동산 커미션 없이 10일안에 집을 사드립니다

- 1 24시간 안에 현찰 구입 가격을 받으시고, 클로징 날짜를 자유롭게 정하세요 (50주 가능)  
NO showings, NO open house, NO repairs
- 2 판매후 1년까지 시세 가격으로 렌트 가능  
Sell & Stay: Lease back up to 1 year after sale
- 3 Option: HOMECASH™: 이사를 하세요? 최선의 매물을 찾아드리고, 저희의 자금으로 (All Cash Offer) 확보하세요  
Buy before you sell!

## 리스팅 PROGRAM



저희와 리스팅을 하시면 시세 최고의 가격과 차별화된 혜택을 받으십니다.

- 1 \$100,000 까지 0% 이자 융자 제공  
(새집 down payment, 집수리 renovation, 이사 비용, 등등)
- 2 MLS 리스팅 이후 판매가격 최대를 못받으시면 저희가 구입하는 Guarantee Program  
Includes: 전문 드론 사진촬영, 3D virtual tour, SNS 광고
- 3 Option: HOMECASH™: 이사를 하세요? Listing 동시에 이사하실 집을 저희의 자금으로 먼저 (All Cash Offer) 확보하세요  
Buy before you sell!

**DIRECT 949-245-2662**

S. California Office: 7035 Orangethorpe Ave Ste E, Buena Park, CA 90621  
Las Vegas Office: 5940 S. Rainbow Blvd, Las Vegas, NV 89118